

2014년
통권 21호



시민의 꿈을 키우는
산시 의회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가족과 함께 넉넉한 웃음으로 화목한 시간 갖는 아름다운 추억만드는 풍성한 추석 되세요.

Contents

- 04 개원사
- 05 인사말씀
- 13 Photo 의정
- 21 의회연혁
- 22 의원 인터뷰
- 29 의사일정
- 30 심터
- 31 의회 상식
- 32 의회용어 해설
- 34 어린이 모의의회 체험 신청 안내
- 35 의회소식지 무료 구독 신청 안내



오산시의회
Osan city council

447-701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
의장실 031) 8036-8000 부의장실 031) 8036-8001 의원실 031) 8036-8003~5 사무실 031) 8036-8024~5
FAX 031) 375-2875 www.osancouncil.go.kr



오산시의회
의장 문영근

대화와 만남을 통하여 시민의 꿈을 이루는 바른 오산시의회가 되도록 노력

존 경하는 시민여러분 !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
언론인 여러분 !

제7대 오산시의회 개원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선출되어 의정활동을 시작 하게 된 의원 여러분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전폭적인 지지속에 오산시장 재선에 성공하시고 민선 제6기 취임식 대신 민생투어를 다녀오신 박상욱 시장님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7대 오산시의회 힘찬 출발을 알리는 개원식을 빛내 주시기 위해 바쁘신 국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안민석 국회의원님 감사드리며, 역대 선배의원 이셨던 조재웅 의정동우회장님, 임영근님, 백승하님, 안재영님, 문중배님, 백대현님, 남대성님, 한지훈님 함께 자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7대 오산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충실하게 대변할 것을 다짐하는 선서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의정활동의 첫 걸음을 내딛는 날입니다. 먼저 22만 오산시민 여러분께서 제7대 의원으로 선택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리 오산시의회 의원 모두는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4년간 오늘 선서한대로 초심을 가지고 시민과 함께하는 격의 없는 대화와 만남을 통하여 시민의 꿈을 이루는 바른 오산시의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선택해주신 시민의 뜻을 가슴깊이 새기고 정당을 뛰어넘어 연구하는 오산시 의회 의원으로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22만 시민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오산시민의 행복과 오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오산시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에 충실할 것이며, 시민의 행복을 위한 큰 뜻으로, 협력하는 상생 의회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감으로서 시민의



꿈을 키우는 오산시 의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4년간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걸맞는 의회를 구현하고, 오산시가 발전하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제7대 오산시의회 개원을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박상욱 오산시장님과 안민석 국회의원님, 조재웅 의정동우회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2만 오산시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며 이만 개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집행부의 견제

인사말씀

사 랑하는 22만 오산시민 여러분!
오산시의회 의장 문영근입니다.

이번 7대 오산시의회에서 초선의원으로서 의장직을 맡게 돼 개인적으로 영예보다는 책임감이 더 무겁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동료의원들께서 합심해 전원의 찬성으로 의장으로 선출해주셨으니 7명의 의원이 늘 소통하며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야의 당을 초월해 지역민원을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의 모범적인 오산시의회로 거듭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의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산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하여 견제와 협력의 기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같은 당 소속의 시장이라고 편들지 않고 적당한 긴장과 협력의 관계로 시민의 행복과 오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시의원에게 가장 바라는 모습은 싸우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거 때만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찾아다니는 모습이 아닌 평소 시민들을 만나는 소통하는 생활정치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언제나 시민이 부르면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열린의회 · 정책의회 · 바른의회로 오산시민의 꿈을 키우는 오산시의회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 상 수

오산의 밝은 미래를 위해 매사 노력하고 경청하겠습니다

존 경하는 시민여러분!
오산시의회의원 이상수 인사드립니다.

이번 제6회 지방선거에서 오산시 가지역구 시의원에 당선되어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여 4년의 임기동안 여러분과 함께 발전하는 오산을 만들어야 하는 시의원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4년의 기간이 흘러 이 자리에 다시 섰을 때 후회와 아쉬움이 없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매사 노력하고 경청하며 시민여러분과 함께 오산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해야 할 일과 꼭 추진할 일들을 정리하여 여러분과의 만남을 준비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여러분이 꼭 원하는 즐거움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 해 봅니다.

시민의 대변자를 넘어서 시민의 눈이 되어 직접 바라봄으로서 시민여러분의 애로사항과 희망하는 바를 가깝게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힘차고 당당한 오산을 만들어가기 위해 칭찬만을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질책이 채찍이 되어 더욱 발전하고 살기 좋은 오산이 되어 가리라 믿습니다. 이번선거에서 보내주신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선택이 빛 날수 있도록 늘 초심의 자세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오산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칙과 기본에만 충실하면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오산시의회 재선의원이 된 손정환입니다.

저는 이번 7대 오산의회에서 최고 연장자 의원이 되었습니다. 만형 노릇, 큰오빠 노릇을 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당이 다른 의원들과도 함께 힘을 합쳐 시민을 위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습니다. 의회 자체 내에서 누구 한 명이 잘했다고 혼자만 튀지 않고, 무슨 일을 하든지 정책을 함께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는 성숙한 의정활동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봐도 그렇듯, 모든 사회구조 시스템은 원칙과 기본에만 충실하면 문제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칙과 기본을 무시하면 사건·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켜나가며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법 강사 이력도 가지고 있을 만큼 생활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 전반에 대해 구조만 가지고 외칠 것이 아니라 생활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조그만 것 하나부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두루 살피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원 손 정 환





의원 김 명 철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고 귀 기울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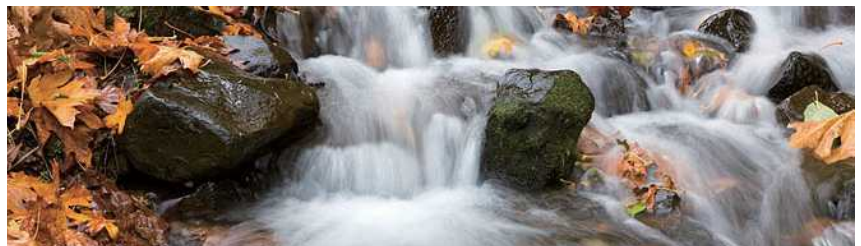
시민들께 먼저 다가가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22만 오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침체되어 있는 오산을 활기찬 오산으로 바꿔보라고 선택하여 주시고 당선시켜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제 제7대 오산시의회가 개원 되었습니다. 제5대 오산시의회의원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책상머리에 앉아서 서류만 뒤적이고 탁상의정 활동만 하는 시의원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어떤 고충이 있는지, 소외받거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있는 분은 없는지 직접 찾아뵙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나아가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 본연의 업무인 예산심의에 관하여도 시민들께서 내주신 피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신 스스로가 가끔 정치란 무엇일까? 하고 반문해 봅니다. 고민하며 내린 결론은 소통이고 섬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4년의 임기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을 섬기며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고 귀 기울이겠습니다. 다시한번 선택해주신 고마움은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산의 깨끗한 곳간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산시의회의원 김지혜입니다.

저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만26세의 나이로 전국 최연소의원으로서 당선되어 제6대 오산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하며 정직하고 깨끗하게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로서 아동과 청소년, 여성과 노인, 장애인 등 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 하지 않도록 집행부를 강력하게 견제하였으며, 의회출석률 100%로 성실검증을 인정받아 시민일보가 주관하는 제11회 의정행정대상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필부함원, 손상천화(匹夫含怨 損傷天和)’라는 정조대왕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명의 백성이라도 억울함을 가지면 하늘의 조화가 손상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정조대왕의 가르침을 책에서 접하고 감명을 받아 이번 선거 예비홍보물에도 문구를 넣은바 있습니다. 이런 정조대왕의 가르침을 받들어 오산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어려움을 챙기고 빠짐없이 꼼꼼히 의정활동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제7대 오산시의회의원으로 다시 선택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보답하는 길은 깨끗한 의정활동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눈치보지 않고 소신 있게 시민을 위해서 할 말 다하고, 시민과 집행부의 교량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며, 원칙을 준수하고 여성의원으로써 작은 사업까지 꼼꼼히 챙기는 오산의 깨끗한 곳간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김지혜





의원 장 인 수

주민의 심부름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오산시의회 의원 나선거구(대원동, 남촌동, 초평동)에 시의원으로 당선된 장인수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큰 성원과 지지로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오산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6세 때 오산시 남촌동(청학동)으로 이사를 와서 현재까지 30여 년을 남촌동, 대원동에서 살아왔으며 성산초, 오산중, 오산고를 졸업한 오산 토박이로써 내 지역·우리 동네 발전과 변화를 위해 열심히 일해보고자 출마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신문기자과 국회의원 비서관을 거치면서 지역 현안과 문제점, 과제들을 끊임없이 주민들과 고민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준비된 시의원이라고 자부합니다.

시의원은 ‘정치인’이 아닌 ‘봉사자’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성장하는 오산, 화합하는 동네, 정이 넘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항상 주민 곁에서, 주민과 함께 토론과 대화, 나눔으로 지역의 건전한 여론 수렴과 화합을 이끌어내고 실천하여 주민의 심부름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소신과 젊음, 강력한 추진력으로 ‘일 잘하는 시의원! 소통 잘하는 시의원! 봉사 잘하는 시의원!’이 되도록 매사 연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되는일 보다는 되는 일이 많은 오산을 만드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산시의회의원 김영희입니다.

먼저 시민 여러분께 봉사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낯선 초선이지만 차곡차곡 배우고 익히면서 시민의 소리, 시민의 발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고 가보고 싶은 오산, 무엇이든 안 되는 일 보다는 되는 일이 많은 오산을 만드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통학로가 없어서, 통학 버스가 부족하여 교육 도시의 아이들이 위험하고, 힘들게 학교에 다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미래가 불안해서 이사를 생각하는 학부모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때문에 떠나는 오산이 아닌, 교육 때문에 찾아오는 오산을 만들겠습니다. 청년 실업과 장년 실직자를 위한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취업, 재취업의 길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발휘 할 수 있는 청소년 문학관을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여 탈선의 길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오산 시민이 예술과 문화를 충분히 접할 수 있도록 격조 높은 작품을 공연하고 전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분들의 고독사 방지를 위하여 독거노인의 가정에 희망벨을 설치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출동 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산시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 김 영 희



정치명언

- 당면한 위험을 피하려는 우유부단한 군주는 중립노선을 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개 파멸에 이른다. - 마키아벨리
- 한 인간의 사람됨을 정말 시험해 보려거든 그에게 권력을 한번 맡겨 보라. - 링컨
- 다스리는 자에게 의리[義]가 있다면, 따르지 않을 백성이 없다. - 孔子
- 모든 권력을 한 정당에 맡기는 것은 나쁜 정부에 보험을 드는 것이라 하였다.
- 마크 트웨인
- 국민을 비굴하게 만드는 정치가 가장 나쁜 정치이다. - 마하트마 간디
- 적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 링컨



의정 Photo



제7대 오산시의회 개원

오산시의회는 7월 1일 현충탑 참배, 의장단 선출을 시작으로 7월 2일 개원식 및 개원축하연을 갖고 제7대 오산시의회를 출범하였다.



오산시의회 개원



UN군 초전기념식 참석

제64주년 UN군 초전기념식 및 스미스부대 전몰장병 추도식 참석

오산시의회는 7월 3일 내삼미동 죽미령 UN초전비에서 '제64주년 UN군 초전기념 및 스미스부대 전몰장병 추도식'에 참가하여 죽미령에서 자유와 평화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한 스미스부대 전몰장병을 추모하였다.



경로당·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개소식 참석

대원1통 경로당(카네이션하우스) 개소식 참석

오산시의회는 7월 6일 관내 대원1통 마을광장에서 카네이션하우스 헌판식에 참석하였다.

카네이션하우스는 경기도에서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경로당 미설치 지역을 카네이션하우스로 선정해 어르신들의 쉼터로 운영하고 있다.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업무개소 · 헌판식 참석

오산시의회는 7월 7일 오산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업무개소 및 헌판식에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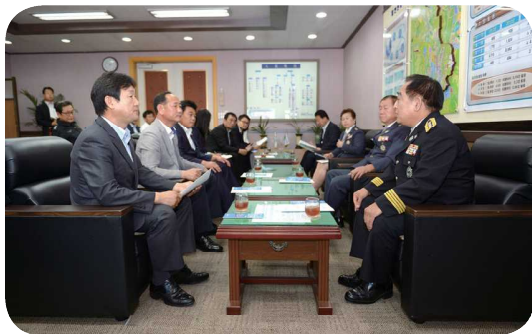
오산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는 오산로 272번길 37번지에 356.1㎡ 규모로 위치해 있으며 보호자 대기실과 음악, 미술, 인지, 작업, 언어 치료실 등을 갖추고 월 160명의 각종 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한 재활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소방서 · 경찰서 · 교육지원청 방문

유관기관(오산소방서 · 화성동부경찰서 ·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방문

오산시의회는 7월 9일 유관기관인 오산소방서 · 화성 동부경찰서 ·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각 기관장 및 담당직원들과 업무설명회를 갖고 상호 협력을 다졌다.



▲ 오산소방서 방문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방문 ▶



▲ 화성 동부경찰서 방문



의원간담회 개최 · 경로당 개소식 참석



오산시의회 제7대 첫 의원간담회 개최

오산시의회는 7월 10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제7대 오산시의회 개원이후 첫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제203회 임시회 일정 등을 협의했다.



신장 나누리 경로당 개소식 참석

오산시의회는 7월 10일 어르신들의 편안한 쉼터 제공을 위해 '신장 나누리 경로당 개소식' 행사에 참석하였다. 오산의 111번째 경로당인 신장 나누리경로당은 수청로 50번길 8-14번지 1층 건물에 120.81㎡ 규모로 문을 열었다.



오산시의회의원 및 직원 합동 연수 실시

오산시의회의원 및 직원 합동 연수 실시

오산시의회는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동안 속초시에서 '오산시의회 의원 및 직원 합동연수'를 실시했다.

합동연수에서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 서우선 박사가 지방의회 기능·역할·운영방법, 정창수 박사로부터 예산 및 결산 심사기법, 최민수 박사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법 등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오산시의회 의원들은 속초시의회와 속초시청을 방문해 양 도시간의 우호교류 협력 증진 및 관계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속초여름해변 오산하계휴양소에 찾아가 시민의 안전과 불편사항을 점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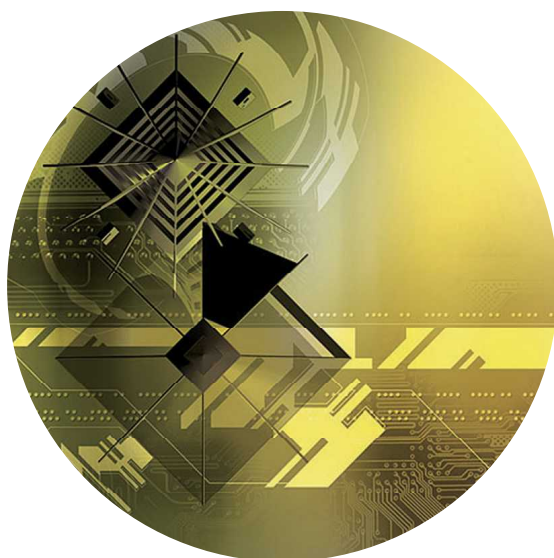
오산시의회 203회 임시회 개최

오산시의회 203회 임시회 개최

오산시의회는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제203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의견' 과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을 심의하고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집행부의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2014년 Summ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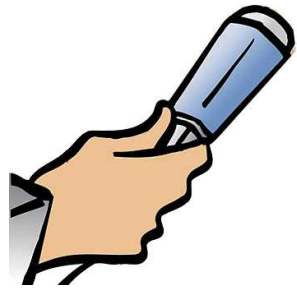


오산시의회는 이렇게 변화하였습니다.

1961년 이후 30여년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도가 1988년 4월 6일 전문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 부활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1989년 1월 1일 시로 승격된 오산시는 1990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에 의하여 1991년 3월 26일 기초의원선거를 실시하였다. 1991년 4월 15일부터 4년간의 초대 오산시의회를 개원하였고,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3년간의 임기로 제2대 의회를 개원하였으며, 1998년 6월 4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해 1998년 7월 1일부터 4년간의 임기로 제3대 의정활동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해 6개동에서 7명의 의원을 선출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4년간의 임기로 지금의 제7대 의정활동을 시작하였다.

문영근 의장 인터뷰



— 당선 소감은?

“초선의원으로 의장직을 맡게 돼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시의원으로써 경험이 부족합니다. 동료의원들께서 합심해 밀어주셨으니 늘 소통하며 풀어가겠습니다. 오산시의회와 소통과 화합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으로서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시의원들이 여·야의 당을 초월해 지역민원을 함께 해결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7대 오산시의회의는 ‘일 잘하는 시의원’ 상을 구축하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의 모범적인 모델인 오산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 집행부와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생각인지?

“견제와 협력의 기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같은 당 소속의 시장이라고 편들지 않고 적당한 긴장과 화해의 관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 시민들의 기대가 큰만큼 민선 5·6기를 맡은 박상욱 시장은 6기에 접어들어 더욱 능숙한 시정을 이끌어갈 것이라 여겨집니다. 민선 6기의 집행부가 자칫 자만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의 적당한 긴장 속에 견제와 협력으로 오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동네 119’ ‘오산시민 보좌관’ 을 약속했다. 이 공약의 의미와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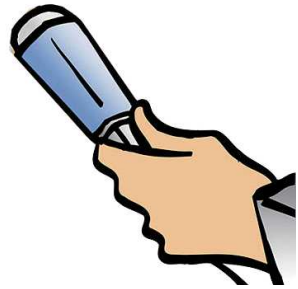
‘우리동네 1199’의 의미는 전직 소방공무원이었던 이력과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가 1199라는 점을 응용하여 만든 구호이다.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믿음을 주는 시의원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오산시민의 보좌관’이란,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우선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다. 정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직접 현장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또한 120 다산콜센터와 같은 시민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를 추진하여 시민의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마지막으로 오산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오산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오산시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시민들이 시의원에게 바라는 것은 싸우지 말고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찾아다니는 모습으로 각인돼 있는데 평소 시민들을 만나는 생활정치로 바뀌겠습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우리며 현장에서 직접 챙기겠습니다. 시민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겠다고 준비돼 있습니다.”



이상수 부의장 인터뷰



— 당선 소감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을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부의장 선출은 아시는 바와 같이 7대 의회의 화합과 상생의 첫걸음을 내딛은 결과입니다. 자리의 중요함보다 주어지는 역할의 중요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역할에 충실한 부의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시민 곁으로 다가서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으로서 민선6기 목표가 있다면?

“오산 남부권과 북부권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감시와 견제도 중요하지만, 시정을 이끄는 양쪽의 수레바퀴라는 인식을 갖고 시민들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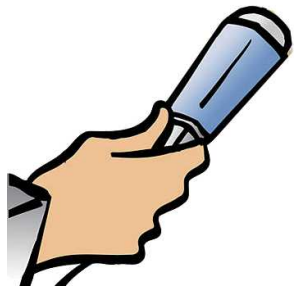
— 마지막으로 오산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말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2010년 선거 때 3년을 준비했고, 이후 4년여를 더 준비해 7년이라는 시간을 많은 관심 속에 의정활동을

지켜봐 와서 그런지 많이 낯설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선거에는 재선의원인 3명이이고 초선의원이 4명이 당선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의원들의 연령대 조화가 잘 이뤄졌다 생각합니다. 화합과 상생의 의회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정환 의원 인터뷰



—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일한 재선의원이다. 각오가 남다를 것 같은데.

6대 오산시의회를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서 매우 반성하고 있다. 시정 활동에 있어서 당내 갈등을 빚은 데에 대해 시민들께 죄송한 마음이다. 당내 자중지란(自中之亂)이 시민들에게 비춰지며 의회의 정치적 위상이 낮아진 것 같다. 당을 지키고 남아있는 입장에서 6대 의원으로서 많이 부끄러웠다.

7대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과거의 경험을 거울삼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려고 한다. 특히 이번 의회에서 최고 연장자 의원이 되었다. 망형 노릇, 오빠 노릇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당이 다른 의원들과도 함께 힘을 합쳐 시민을 위해 제대로 된 시정을 펼치고 싶다.

의원들 간 나이 연배도 폭이 그리 넓지 않아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들이 많다. 6대 의회의 문제점에 대해 초선의원들도 많이 생각해진 터라 이번에는 의장 중심이 아닌 의원들 중심인 의회를 만들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선거 당시 내세웠던 공약 중 법률적인 검토를 못했거나 예산상 어려운 공약은 점검해볼 계획이고, 당선되지 못한 후보들의 공약까지도 검토해서 좋은 정책은 실현해나갈 생각이다.

의회 자체 내에서 누구 한 명이 잘 했다고 혼자만 튀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정책을 함께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려 한다. 식사를 자주 함께 하기로 했다. 출발이 좋다. 7기부터는 더 성숙한 의정활동을 보여드리도록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

— ‘아이들이 안전한 오산’ 을 약속했다. 이의 실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생각인가?

세월호 사건을 봐도 그렇듯, 모든 사회구조 시스템은 원칙과 기본에만 충실하면 문제될 일이 없다. 원칙과 기본을 무시하면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발생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켜나가며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

나는 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법 강사의 이력도 가지고 있을 만큼 생활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식품, 먹거리 등 생활안전 전반에 대해 구호만 가지고 외칠 것이 아니라 생활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조그마한 것 하나부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두루 살필 것이다. 예산 부족을 핑계로 미뤄두지 않겠다. 예컨대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드는 문제에 있어서도 학부모 자원봉사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말 그대로 생활 정치 아니겠는가.



김명철 의원 인터뷰



- 새누리당 재선 의원으로서 역할이 막중하다. 민선6기 박상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을 어떻게 펼쳐나갈 생각인가?

의원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행사성이나 선심성 예산들을 찾아내어 그런 부정한 예산들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집행부라 해서 무조건 견제만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불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4 대 3 구도가 되어 무조건 집행해야 하는 입장이겠지만 당적인 부분에 대해 무조건적인 지원은 견제해야 한다고 본다.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에 대해 다른 의원들과 협력하고 함께 나아가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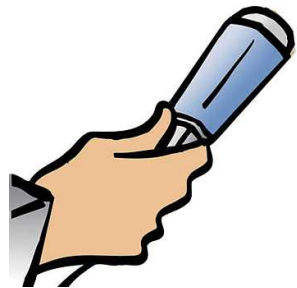
- 청소년,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공약이 많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적다. 집에 있으면 컴퓨터, 텔레비전, 휴대폰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부다. 따라서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문화센터를 확충하고 청소년들의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공간을 늘리고 싶다. 한편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교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또 노인의 경우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은 비교적 다행이지만 수급 조건은 갖추고 있으면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많다. 이런 분들을 발굴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기업체들과의 협약을 통해 여성, 노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다.



김지혜 의원 인터뷰



- 이번 6.4 지방선거의 결과로, 오산시의회는 또다시 새정치민주연합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견제 역할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

제7대 오산시의회는 지난 2010년과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 오산 시민들이 선택해주신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 이러한 행태들은 본인들과 이념이 다른 시민들은 등한시하고 불통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는 말처럼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을 섬기고, 시민이 시장이 되는 시정을 펼치려면, 자신과 뜻이 다르다고 불통할 것이 아니라 같이 토론하고 연구하여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7대 의회에 들어서도 지역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오산 시민 분들께서 이런 행태에 대하여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절약하는 행정 투명하고 혁신적인 행정’ 이 공약이 눈에 띈다. 이를 어떻게 구현해 나갈 생각인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누구의 눈치를 보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학연, 지연, 혈연이 없어질 수 없다 하여도, 오산시 행정은 이에 의한 역학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일단 이러한 부분부터



뿌리 뽑아야 하며, 정치인들이 양심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수의계약의 건이나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금 같은 예산이 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심의 시 삭감의 부담이 크게 느껴진다면,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시민의 예산 참여 기회를 확장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단체에서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집행부에서 관리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가 현재보다 확장된다면 집행부나 의회에서 더 깨끗이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소통이 잘 되어야 시민들의 의견수렴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의회 의원들이 공무원과 시민과의 교량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도 함께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시민들을 대변해야 할 시의원들이 그 누군가의 거수기 역할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시민을 위해 깨끗한 의정활동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눈치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시민을 위해서 할 말 다하며 시민과 집행부의 교량역할을 할 것이다. 원칙을 준수하면서, 여성의원으로서 작은 사업까지 꼼꼼히 챙기는 오산의 깨끗한 공간지킴이가 되겠다.



장인수^{의원} 인터뷰

성장하는 오산, 화합하는 동네, 정이 넘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항상 주민곁에서, 주민과 함께 토론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지역의 건전한 여론 수렴과 화합도 이끌어내고 실천하여 주민의 심부름꾼 역할을 다할 것이다. 소신과 젊음, 강력한 추진력으로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어렵고 힘든 일이 봉착되어도 회피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선봉에 나서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투명한 시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

‘일 잘하는 시의원! 소통 잘하는 시의원! 봉사 잘하는 시의원!’ 이 되려 한다. 따뜻한 격려와 관심으로 힘을 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초선의원으로서 각오가 남다를 것 같은데, 정치인으로서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부족한 사람을 오산 시의원으로 당선시켜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초선이기는 하지만 당선된 지역에서 30여년을 살아왔으며 지역신문 기자로 2년, 지역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4년을 시민들과 함께 일 해왔기 때문에 지역 정서나 현안 문제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정치인으로서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부한다.

시의원으로서의 일은 그 누구나 준비하고 공부하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의원으로서의 마음가짐이 아닌가 싶다. 시의원은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과는 달리 ‘정치인’이 아닌 ‘봉사자’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시민들의 발이 되고 눈과 귀가 되어, 어렵고 힘들고 하기 싫어하는 모든 일들을 책임지고 실행하는, ‘말이 아닌 발로 뛰는 시의원’이 되려고 한다. 또한 민주주의의 기초라는 시의회가 본래 기능에 충실하도록 바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먼저 시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해 행정 능력을 높이고,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에 우선을 두고 ‘지역주민의 민원은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해결한다’라는 강한 의지와 정신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

— 이번 6.4지방선거에서 ‘동네 구석구석’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주요 지역현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아울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우선 ‘동네 구석구석’이란 슬로건은 시의원의 기본 지침이라 생각한다. 시의원이라면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 ‘시민들의 손이 닿지 않는 동네 구석구석’까지도 살피고 찾아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건 지역현안은 크게는 오산시 전체 현안과 동별 공약, 분야 별 공약으로 나뉜다. 그중 올해 안에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핵심 현안은 오산역환승센터의 조기 착공, 원동초 내 주민개방 수영장·체육복합시설 건립이 있다. 환승센터는 이미 행정적인 준비가 9부 능선을 넘겼고, 앞으로 오산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예산이 문제되지 않고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원동초 시설의 경우 시의 예산은 확보되었으나 교육청과 경기도의 예산이 추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과 경기도 의원들과 협의하여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김영희 의원 인터뷰

— 새정치민주연합 비례 시의원으로 시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오산시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부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시민을 대변하고 시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길을 부여받았기에 시민의 귀와 발이 되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시장님께서도 같은 마음이기예 ‘시민이 시장이다.’ 라는 말을 쓰고 계시다.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시정을 이끌어 나가고자 한다. 어려운 정책은 시민참여 토론을 통해 좋은 대안을 찾고 좋은 정책은 적극 지지하여 오산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 보육전문가로 새정치민주연합에 영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오산시가 출산보육시범도시인만큼 많은 역할이 기대된다. 오산시민에게 한 말씀?

교육도시 오산은 보육과 혁신 교육의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난 4년 동안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어느 도시보다 시립 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하여 보육도시의 양적인 면모를 갖추었다. 앞으로의 4년은 보육의 양적 지원보다는 보육시설의 질 높은 보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 유아기 아이들에겐 다양한 경험과 체험 활동이 교육의 시작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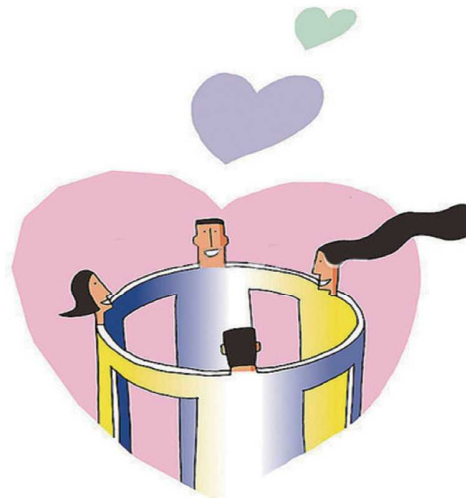
오산은 물항기 학교, 혁신 학교 중심으로 많은 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교육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모습은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다. 낮은 학력 수준과 위험한 통학로 그리고 부족한 통학버스 노선 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다.

시의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학력수준 향상과 더불어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들어, 최소한 학교 및 학업 문제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사 가는 오산 시민은 단 한 분도 없도록 하겠다.

오산의 보육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학부모님들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과 접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만나 대화하고 토론하여 진정한 교육도시 오산을 만들어 나가겠다.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오산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산시의회

제202~203 임시회 개최

오산시의회(의장 문영근)는 지난 7월 1일 제202회 임시회와 7월 2일 개원식,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03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제202회 임시회에서는 제7대 오산시의회 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여 제7대 오산시의회 의장단 선출을 하였다.

개원식은 의원선서, 의원윤리강령 낭독, 의장 개원사, 시장·국회의원 축사, 안전행정부장관 축하전문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203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시정업무보고를 받고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였으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 인터넷 생방송 안내 : 오산시의회 모든 회의는(본회의 및 특별위원회 회의) 오산시의회 홈페이지(<http://osancouncil.go.kr>)에서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행복의 기쁨을 나누다.

- 가장 현명한 사람은 큰 불행도 작게 처리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조그마한 불행도 현미경으로 확대하여 스스로 큰 고민 속에 빠진다. - 라 로슈푸코
- 남의 행복을 몹시 싫어하고 남의 행복 위에 자기의 행복을 세우려는 사람은 결국 그 자신도 행복하게 되지 못한다. - D.H. 로렌스
-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남의 장점을 존중해 주고 남의 기쁨을 자기의 것인 양 기뻐하는 자이다. - 괴테
- 불행을 만나면 우리들은 이웃으로부터 공감을 구하고 그대는 마음의 한 부분을 그에게 준다. 만일 마음이 선량한 사람이라면 그는 그대에게 고마워할 터이고, 만일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이라면 그는 그대를 비웃을것이다. - 칼릴 지브란
- 불행한 사람을 비웃지 말라. 자기의 행복이 영원한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 - 라퐁텐



□ 오산시의회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오산시의회는 관내 6개동을 2개의 선거구【가선거구(중앙동, 신장동, 세마동), 나선거구(대원동, 남촌동, 초평동)】로 나뉘서 각 선거구에서 3명씩 총 6명을 선출하며 정당에 대한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 1명을 선출하여 총 7인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 2년의 전반기 의장단과 후반기 의장단을 각각 선출한다.

현행법상 13인 이상의 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오산시의회에는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으나,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회의는 언제 하나요?

오산시의회는 매년 두 번의 정기회의를 갖고 그 외의 임시회의를 하게 됩니다. 1년에 두 번 열리는 정기회의를 정례회라고 하며 정례회는 매년 6월 넷째주 목요일과 12월 1일에 집회되고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되며 소집권자는 지방의회의장입니다.

회의 일수는 정례회의는 총 40일 이내에 열리게 됩니다. 임시회의의 경우 1회에 15일 이내로 열리게 되며 임시회와 정례회를 합해 총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집회가 필요할 때는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시회는 특정 사안에 대하여 필요 시 소집되는 회의로서 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됩니다.

의회 용어 해설

□ 5분 자유 발언

심의중인 의안이나, 청원, 기타 관심 사안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5분 이내의 발언내용을 작성하여 본회의 개시까지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가결

可決은안건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否決」은 안건이 통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이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안건의 경우 적극적으로 찬성이 과반수를 넘어서 가결되는 이외에는 부결이 되게 된다. 즉, 반대가 과반수를 넘는다면, 찬성이 과반수가 넘지 않는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되게 된다.

□ 개의

개이란 회기 중에 당일의 본회의를 여는 것을 말하는데 개의는 전체적인 회기가 시작됨을 강조하여 사용된다.

□ 개정안

현행 법률이나 조례 등을 입법정책의 변화, 관련법령이나 조례 등의 개폐, 업무 개선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체계·형식 및 자구를 정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입법기준과 약속에 따라 입안하여 제출한 안을 말한다.

□ 개회

「開會」란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제○회 ○○의회(임시회 또는 정례회)가 개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이나 회의 규칙에서는 위원회의 당일 회의를 여는 것을 「개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開議와 開會」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 계류

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으로서 제안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논의 중이거나 논의할 대상으로 놓여있는 상태를 「繫留」라고 한다. 계류는 상정된 것과 상정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데 상정 여부에 따라 안건의 철회 절차가 다르게 된다.

□ 시정 질문

행정의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일정 범위의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그 소견을 묻고 설명을 요구하거나 또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기관의 소견을 묻고 설명을 요구하고자 하는 시의원은 본회의 개시 24시간 전까지 질문서를 작성하여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동의

「動議」라 함은 회의체에서 의원(위원)이 통상적으로 안을 갖출 필요 없이 발의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회의체의 의사결정을 위해 안을 맨처음 제안 하는 과정이 된다. 동의는 회의진행 과정에서 논의하고 있는 의제와는 독립한 의제로서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통상 구두로 발의(서면동의 가능)하게 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의자 외 1인 이상이 찬성하면 그 동의는 성립되었다고 하고, 성립된 동의는 회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는 대상, 즉 의제가 되는 것이다.

□ 발언권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언통지를 하고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는 의사를 정리하고 의원의 발언준비와 발언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것이다.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위원장)은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의장(위원장)은 신청된 순서에 의해 발언할 의원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미리 발언신청을 하지 아니한 의원의 발언은 발언신청을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후에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 부결

可決 은 안건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否決」은 안건이 통과 되지 아니 하였다는 의미이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안건의 경우 적극적으로 찬성이 과반수를 넘어서 가결되는 이외에는 부결이 되게 된다. 즉, 반대가 과반수를 넘는다든지, 찬성이 과반수가 넘지 않는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되게 된다.

□ 부의

「附議」란 안건이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에 놓는다는 의미로 사용 되는데, 이 용어는 본회의에만 사용하고 있다. 즉,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것은 본회의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하는 상태에 놓는 것을 말하는데 「부의」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회의에 상정시키는 행위가 필요하다.

□ 산회

「散會」는 그날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여 회의를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산회도 의장 또는 위원장이 선포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 합니다.」의 형식으로 선포하게 된다. 그리고 일단 개의(개회)된 회의에 대해 산회를 선포하지 않는 한, 당일 24:00 까지는 회의를 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 상정

「上程」이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나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당일 회의에서 심의를 시작한다는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에 대해 「〇〇〇을 상정합니다.」 선포함으로써 비로소 당해 안건이 상정되었다고 하고, 당해 안건을 심의할 수 있게 된다.

□ 속개

속개란 중지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에도 개의되는 때와 같이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한다.

□ 심의와 심사

「審議」와 「審査」는 의회에서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서 즉 의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심의는 본회의 본의단계를 말하고 심사는 위원회 논의 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구별한다.

□ 의결정족수

「議決定足數」는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 수를 말한다.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정족수를 정하는 이유는 회의체의 구성원 모두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일정한 의원수가 출석하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의원수 이상이 출석하여 의결한 사항은 회의체의 의사결정으로 보자는 것이다.

□ 의사정족수

「定足數」란 회의를 개의(개회)하거나 어떤 사항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한다. 「議事定足數」는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를 개의 또는 개회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를 말한다. 본회의와 위원회 모두 재적의원(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개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임시회

지방의회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개회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매일 본회의를 열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개회 되는 정기회와 부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개회하는 「임시회」가 있다. 임시회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와 자치단체의 장 요구로 개회된다. 일단 개회된 임시회의 회의 기간은 20일을 넘을 수 없다.

□ 전문위원

지방 의원들의 의회 활동과 회의 진행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도와주는 공무원을 말한다. 전문위원은 시·도의회는 4급 지방공무원, 시·군·구의회는 5급 또는 6급 지방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있다.

□ 청원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비위시정, 법률, 명령의 제정, 개정 그리고 공공의 제도 또는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희망을 개진함을 말함.

어린이 모의의회 체험 신청안내



오산시의회(의장 문영근)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의회를 통한 의사결정 방법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토론문화 정착과 지방자치제도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관내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모의의회 체험신청을 다음과 같이 받습니다.

- 신청기간 : 수시
- 대 상 : 관내 소재 및 거주하는 초등학교생
- 운영방법
 - 1일 1개교 (30명 이내)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비회기시에 운영 (상호 협의)
 - 1회당 발언자 15명 이내, 나머지 방청
 - 다수 학교 신청시 선착순(신청일 기준)에 의거 운영
 - 진행 시나리오는 모의의회 신청학교에서 적절한 주제를 선정하여 의회에서 준비한 시나리오(안)를 참고로 작성
- ♣ 전화문의 : 의회사무과 T. 8036-8024, 8036-8025 (담당자 한상용)

의회소식지 무료 구독 신청 안내

○ 오산시의회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의정활동 등 다양한 의회소식을 담은 『오산시 의회소식지』를 반기별로 발간 합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 신청기간 : 수시
- ◆ 신청장소 : 의회사무과(☎ (031) 8036-8025) 또는 동 주민센터
- ◆ 신청방법 : 아래의 구독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과 또는 동 주민센터로 신청(세대당 1부를 원칙으로 함)
- ◆ 신청서 비치 : 의회사무과 또는 동 주민센터,
의회 홈페이지 www.osancouncil.go.kr
- ◆ 신청서 서식

의회 소식지 무료 구독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소	(우편번호 -) 경기도 오산시
	연락처	

상기 본인은 오산시의회에서 발행하는 의회소식지의 구독을 신청합니다.

2014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오산시의회의장 귀하

※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의회소식지 발송 자료로만 활용합니다.



오산시의회

Osan city council

447-701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 / www.osancouncil.go.kr